

DJ 이후 호남 정치권 리더 누가 되나

중진 많아졌지만... 역량 “글썸”

17대 비해 영향력 크게 증가...미래비전 제시할 리더 키워야

18대 총선에서 마무리된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DJ) 이후 호남 정치권의 미래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인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이번 총선 결과가 보수세력의 압승과 개혁 진영의 참패로 귀결되면서 호남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 결과 민주당에서 호남 정치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7대 국회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호남 정치권의 영향력은 대폭 확대된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 의석 81석 가운데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정치권이 차지한 의석은 25석. 여기에 무소속 당선자와 비례대표까지 포함한다면 40석에 가까운 전체 의석수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주·전남지역 정치인들도 다선 의원으로 성장하면서 정치적 종량감이 더해졌다. 당장 광주·전남지역 18대 총선 당선자들을 살펴보면 5선 의원이 3명(박상천, 김영진, 김충조)이나 된다.

또한 3선 의원이 4명(김효석, 이낙연, 김성곤, 유선호), 재선 의원이 무려 8명(주승용, 서갑원, 최인기, 강은태, 우윤근, 박주선, 강기정, 김동철)에 이른다.

특히 이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DJ의 그늘에서 벗어나 성장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자생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 정치인들이 DJ 이후, 호남 정치권을 이끌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까지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냉정한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상천 공동대표가 거론되고 있지만 부정적 반응이 우세한 상황이다. 3선 그룹에서는 김효석, 김성곤 의원, 재선 그룹에서는 최인기 의원과 박주선 당선자 등이 주목받고 있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또 아직 복안은 되지 않았지만 박지원 당선자와 강은태 당선자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지역 당선자 그룹에서 6월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DJ 이후, 누가 호남 정치권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제 호남지역 정치인들이 과감한 도전을 통해 정치력을 극대화할은 물론 당선자들도 서로 밀어주는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 공천배경 논란 증폭

당도 모르는 인사, 비례대표=비밀대표

‘나눠 먹기용’ 공천...특별당비·학력의혹 제기 등 잇따라

‘비례대표는 비밀대표.’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한 당선자 일부의 공천 배경과 경력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친박연대 양정례, 창조한국당 이한정, 한나라당 김소남, 통합민주당 김유정, 정국교 당선자 등이다. 일부 당선자의 경우 당직자들조차 누구인지 모를 정도여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여론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당선자는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씨. 올해 31세로 18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양 당선자는 당에서조차 ‘박사모 여성회장’으로 소개했다가 정정하는 등 정확한 경력이나 공천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친박연대 전체 비례대표 당선자 8명 중 5명이 서청원 대표의 사조직 ‘청산회’ 출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 양 당선자의 경우 어머니인 김순애씨가 건설업체 대표이고, 민자당 중앙상무위원 및 자민련 당무위원 등을 역임해 어머니의 후

친박연대 양정례 경력 배일 학력 과장
호남 배려라던 한나라 김소남 이력 의혹
박상천 측근 김유정 15번 형평 논란
민주 6번 정국교 이틀만에 검찰 수사

한나라당의 경우 7번 김소남 당선자가 도마에 오르 고 있다. ‘호남 몫’으로 비례 대표 상위 순번을 배정했다는 것이 당의 공식 설명이지만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김

당선자의 고려대 경영대 대학원 교무부장 경력을 들어 ‘고려대 동문 공천’의 일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비례대표 15번 김유정 당선자의 경우 당료 경력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박상천 공동대표의 추천 몫으로 당선권에 배치된 것을 놓고 당직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심지어 이상 고생한 여성 당료들이 즐비한데도 김씨가 상위 순번을 배정받은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6번 정국교 당선자가 총선이 끝난 지 이틀 만에 추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통합민주당 당선자 간담회에서 김효석 원내대표, 손학규·박상천 공동대표(왼쪽부터)가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여 견제 야당 역할 충실”

민주 당선자 첫 한자리... 65명 참석 시종 ‘침울’

4·9 총선에서 당선된 81명의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으나 좋지 못한 성적 때문에 침울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성실한 의정활동과 함께 매서운 ‘거여(巨與) 견제역’을 충실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65명 안팎 당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당선 소감 및 각오를 밝히는 한편 총선 패배 원

인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손학규·박상천 두 대표는 이구동성으로 이번 총선을 계기로 당내 계파정치를 불식시켜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수적으로 위축된 민주당에는 오직 단결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의지만 있을 뿐 계파나 분파는 있을 수 없다”며 “총선을 계기로 우리 모두 화합적 결합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당대회를 열어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패배에 대한 자성론과 원인 진단도 제기됐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번 패배는 한나라당에 의한 패배가 아니라 진보적 가치 준비를 소홀히 한 우리 자신의 패배”라며 “꾸준한 토론으로 노선과 가치,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건 선거 개입에 대한 문제제기도 상당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장관들의 관련선거 개입 행적이 곳곳에 보여 내용에 따라 5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낼 수도 있다. 특히 뉴타운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많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전당대회전 무소속 복당 불가 가닥

통합민주당이 호남지역 무소속 당선자 6명에 대한 복당을 전당대회 이전엔 허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 무소속 당선자의 복당은 전당대회 이후에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14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선 민의 왜곡과 원구성 협상 등을 이유로 전당대회 이전 호남지역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을 불허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호남지역 무소속 당선자들의 즉각적인 복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왜곡한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고 한나라당에 무소속 당선자의 영입 명분을 제공, 18대 원 구성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당내 분위기도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확보한 81석에 6석을 더하더라도 개헌 지지선(100석) 초과 등의 실익이 별로 없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판단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복심인 박지원 당선자를 견제하려는 당내 계파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아직까지 개혁 진영의 정신적 대주인 DJ의 영향력이 가세한다면 전당대회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지원(목포), 이운석(무안·신안), 김영록(해남·완도·진도), 강은태(광주·남구), 이무영(전북 전주 완산갑), 유성엽(경북 정읍) 등 호남 무소속 당선자 6명 뿐만 아니라 신계륜 전 사무총장,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이호영 전 의원 등 공천탈락 후 무소속 출마했다 낙선한 인사들의 복당 여부도 전당대회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의회 18일부터 임시회

전남도의회는 30일 개회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오는 18일과 30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시·도정 전반에 관한 질의를 벌이는 한편 각 상임위별 의정활동을 비롯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광주시의회(의장 강박원)는 오는 1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167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1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나종천 의원 등 모두 3명의 의원들이 광주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벌인다.

의원들은 또 광주시 지방공무원 예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처리한다.

전남도의회(의장 김종철)도 오는 30일부터 임시회를 개최한다.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료수집 및 현장활동에 나서는 한편 조례안도 심의할 계획이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im Young's university entrance preparation courses. It features the text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and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It lists various exam types like '일반편입', '학사편입', and '사범대편입'. The website 'www.kimyoung.co.kr' is provided. There is also a logo for '인생역전' (Life Turnaround) and a date '5월 1일' (May 1st).

Advertisement for '무등고시학원' (Mudeung Gosihakwon). It promotes '9급 공무원' (9th Grade Civil Servant) preparation. It lists various subjects like '행정', '교행', '세무', '관세', '감사', '법률', '검찰', '교정', '보훈', '소방', '전산', '복합', '토목', '건축', '보건의'. It mentions a '5월 9급 지방직대비' (May 9th Grade Local Government Exam Preparation) course. The website 'www.mdgosl.co.kr' and phone number '222-4560' are provided.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Brokerage Specialist Academy). It promotes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18th Public Brokerage Specialist Exam) preparation. It lists '서구점 ☎361-8111' and '북구점 ☎529-8111'. It also mentions '개강 매월초 주야 합격' (Start every month, weekend/evening classes, pass) and '국비무료' (Free government funding). The website 'www.kimyoung.co.kr' is provided.